

기
3
1
T

중급

< 귀차아 법 이야기 > 을 읽고 나서

처 음	1단계	<p>도저히 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돈에 자원이 이었던 제국이라서. 기</p>
가 운 데	2단계	<p>2014 5월 30일 <u>입법</u> 조인 대한민국의 법의 개수는 4366개 나 되다고 한다. 그 법을 알 리 가 쉽지 않다. 개인과 개인사이에 생기는 문제들 사법이라고 한다. 개인과 국가의 문제들 공법이다.</p>
	3단계	<p>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u>법이 없어지면</u> <u>나라와 다른 사람들의 위해에 필수</u> 있다는 것을 느꼈고 법이 없으면 나라 사이에 갈등이 더 심해질 것 같다.</p>
끝	4단계	<p>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u>나라는 법을 잘 지키는 것</u> <u>이 중요</u>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보이면 자신과 정의를 가지고 살고 싶다.</p>


268mm

< 오백년째 열다섯 1 > 을 읽고 나서

처 음	1단계	이 책을 읽게 된 이유: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데 "오백년째 열다섯"이라는 제목이 특이해서 호기심에 읽어보았습니다.
가 운 데	2단계	주인공 가을이(서희) 엄마, 할머니와 죽을 위기에 처해있는데. 그때 야호인 령이 가을에 세 모녀를 야호로 변하게 해 모녀를 살리고 주인공과 주인공 엄마, 할머니는 "호랑속"이라는 존재에게 구슬을 뱉고 죽지 않는 이상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이 되었다. 그 상태로 오백년동안 수많은 생일, 이름을 바꾸가며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연도에는 엄마, 할머니가 둔갑술을 해 같이 다니다 하며 같이 다니고 가을의 자카공과 만나고 정체를 밝히고 생타고 다닌다. 어느 날, 가을에 세 외녀를 불러준 "령"이 죽고, 가을은 최초의 구슬이 자신에게 있다는걸 알고 구슬전쟁에 참여해 싸움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게 한다.
	3단계	책을 읽고 난 다음 나의 생각과 느낌: 이 책을 읽고 난 다음 처음 생각이 들었던 "산랑 가을이 언제 이어지나?" 이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권... 나오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낌은 "구슬전쟁"이라는데 임팩트가 있어야 하는데, 왜 하얀색 던지고, 파란색 크와아아... 7 구슬이 알한닷! 멈추라! 이런 느낌이라 허무했습니다.
끝	4단계	나의 다짐: 이 책을 호기심에 읽어보았지만, 너무 재밌었다 2권이 나오면 꼭 읽을것이다!



< 고양골/강 에너지는 왜 중요한가? > 을 읽고 나서

처음	1단계 읽기 준비	이 책을 알게 된 이유는 반전체가 도서관에 갔을 때 임원 책을 찾다가 표지가 재미있어 보여 책을 고르게 되었다. 읽다보니 재미있어서 대충 읽어 알게 되었다.
가운데	2단계 읽기	이 책은 에너지, 원자력, 수소, 지구 환경에 대한 책이었다. 책은 에너지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신질을 가지고 있는지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발전하는지 지구 온난화의 중요성과 수소 원자력, 핵융합 등의 내용이 있다. 이 책 중 중요한 면역과 그 면역에 대한 설명 등 그에 대한 이야기나 에 피소드 등이 나와있었다.
	생각	이 책의 중요한 단이에는 석유 등과 대조한 것이 알려졌고 좋았다. 내가 몰랐던 다른 과학상식도 알려졌고 좋았다. 물을 때 거꾸로 하지 않게 이야기를 써서 재미있고 유익했다. 에너지 내용이 재미있었다. 왜냐 하면 에너지 이야기가 가장 많았는데 이야기가 이어지다 보니 집중이 더 잘되어 좋았다. 그리고 '고양골/강' 4리지가 있어 다른 책도 읽어보고 싶다.
	3단계	
끝	4단계	에너지에 대해 배워 좋았고 모르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 이 과학 공부를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 

< 위대한 유산

> 을 읽고 나서

처 음	나 1단계	이 책을 읽게된 이유는 집에 있는 안 읽은 책 중에 이 책을 골라서 읽게 됐다.
가 운 데	중거리 2단계	어느 날, 평은 강목에서 탈출한 사람을 만난다. 이때 평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도 그 사람을 도와준다. 그이후 평은 어떤 후원자의 유산을 이어받게 된다. 그러나 유산을 이어받고 아킬레 부터 회고 싶어하던 신사가 되지만 마냥 행복하진않은 않았다.
		평은 부끄럽게 여겼던 매형에게서 진정한 신사의 모습을 보는것은 더욱 심숙해진다. 그로 인해 평은 물질적인 풍요나 명예가 아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바로 위대한 유산 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상당 노력 3단계	강목에서 탈출한 사람을 평생까지 알고 도와줄 평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명예도 풍요를 지니는 가난한 집안지만 그런 값비싼까지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 매형이 대단하다고 느꼈고, 본인의 일인 매형간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노력하며 힘내는 매형 또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끝	보통사람 4단계	본인이 처한 상황을 부인하고 숨기려 하거나 인정하고 얘기며 최대한의 노력하는 매형이 존경과 마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꽃섬 고양이

> 을 읽고 나서

김시윤

처음	1단계 이유	꽃섬 고양이라는 책을 읽는 이유는 꽃섬에서 사는 고양이 같았고 고양이랑 꽃은 좀 좋아했다. 그리고 책 표지가 예쁜 노랑색에 꽃들이 있었고 아래에 검은색 고양이 그림이 있었는데 눈이 꽃섬 고양이 같아서 한번 읽어보았다. 근데 꽃섬 고양이뿐 아니라 더 다양한 책 내용들이 있어서 읽는 게 더 오래 걸렸는데 나는 꽃섬 고양이라고만 해서 꽃섬 고양이만 샀다.
가운데	중거리 2단계	4월이 되면 산 전체가 봄꽃으로 물들어서 꽃섬이라 불렀다. 노랑이는 교회 교육관 지하실 천장에서 지낸다. 노랑이 어머니는 애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시작했다. 노랑이는 어머니에게 짐승이라 하여 돌아갔다. 다음날 애들은 어머니에게 나들이 가자고 졸랐다. 그리고 삼남매는 떨어진 꽃잎을 잡으려고 정신이 팔렸다. 그때 커다란 자사가 노랑이 삼남매를 덮쳐왔다. 어머니는 삼남매를 밀치고 차에 치였다. 목이 막힌 막내가 죽고 둘째도 차에 치여 죽었다. 노랑이는 무로 음식소리가 먹음직스러워 받았다. 어느날 어떤 아저씨가 무로 음식소 앞에서 었어 죽어있던 노랑이를 발견했다. 그리고 노랑이가 새끼를 낳았다. 그건에 두명이 석사도 죽었다. 노랑이는 슬픔에 빠졌지만 희씨가 위도를 해 주었다. 희씨 수복이가 생겼다. 그리고 수복이도 새끼를 낳았다. 그리고 희씨가 집을 사서 행복하게 살았다.
가운데	느낌과 가장 3단계	처음에 이야기 줄거리할 때 내용이 많고 또 여러 가지라서 좀 고민이 돼있지만 제목이 꽃섬 고양이라서 그냥 꽃섬 고양이 이야기만 쓰었다. 처음에 어머니 고양이가 죽고 따라가서 막내하고 둘째도 세상을 떠나서 노랑이가 많이 외롭고 슬플 것 같았다. 근데 무로 음식소 앞에서 었어서 죽을 뻔한 희씨를 구할 때 대단한 것 같았다. 하지만 노랑이가 낳은 새끼들이 석사를 하고 계속 하여서 죽을 것이 슬플 것 같다. 하지만 마음씨가 좋은 희씨 덕분에 노랑이가 기운을 차려서 정맥도 다행이었다. 그리고 수복이가 임신을 하여 수복이 새끼들을 낳아서 노랑이는 행복할 것이라 또 희씨가 집을 사서 그집에서 다 같이 행복하게 지낼 것 같으니 기분이 좋아졌다.
끝	아직 4단계	나도 어른이 되면 무로 음식소를 만들고 싶어지기도 하고 어릴 때 어떤 할머니 집을 두어주 적도 있었다. 나도 시간이 될 때 사랑받을 노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리고 나도 아이에 엄마가 되면 노랑이 처럼 우리 아이를 죽지 않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김시윤의 꿈



< 오뚜기 유두버

> 을 읽고 나서

처 음	1단계	엄마 아내는 분이 책을 써서 책장에 있는 한 번 읽어보는데 재미있어서 알고 있어요
가 운 데	2단계	<p>덕수는 처음에 싫어합니다 엄마의 말을 들어줍니다 덕수 1바 만에 줄타기는 1바 이 이걸 싫어하다 더더욱 더수가 나가는 이어 줄타기를 하게 합니다. 더수가 자꾸까진 등입니다. 중순전에 다리를 때 툰이 다리에 걸려 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먹는 걸 다져 하기로 하 바와 2바 씩입니다. 오후, 덕수가 순대로 2바를 씹어 먹는 게 규칙입니다. 거름 다 먹어간다고 더수가 이겼습니다.</p>
	3단계	<p>더수는 이걸 싫어하는데 둘이 걸려 넘어지니 아쉬움이 클 것 같아요 하지만 더수는! 대결을 이겨 기분이 좋게 무척 기뻐할 것 같아요!</p>
끝	4단계	<p>더수는 더더욱 잘대어서 나도 편식 하지 않고 잘 먹으려 다짐 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0. 10. 10</p>

지호
* 뒷면도 있음

중급

< 검은 여우

> 을 읽고 나서

처 음	1단계	처음에 톰은 농장가기를 싫어했다. 톰은 집에서 조립 장난감을 조립하여 노는걸 좋아하지만 이번 톰에 부모님의 문화를 좋아하는데서 사랑 50명과 함께 유럽에 가기로 해 톰은 농장에 보내려 했다. 톰은 애절하게 개가 바보같이 다그치며 톰을 목욕기 대충에 등을 쓸어내려서 가기를 싫어하지만 엄마랑 만다툼을 하게 되고 엄마가 욕에서 농장에 가게 되었다.
가 운 데	2단계	톰은 농장에 도착하였다. 이모는 엄마를 복음처럼 만드라 나로 지켜보지 못한다 이모와 인사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애기를 나누고 톰의 부모님이 갔다. 이모가 차를 더 마시라고 못했지만 산책하려고 나왔다. 저녁이 되어서 톰이 집에 돌아와 집구경을 하였고 부바형이 쓰던 방에서 짐을 풀고 저녁을 먹고 좀 놀게 하였다 농장일을 계속하고 4일째 피터에게 편지가 왔다. 피터는 공포극장에 대해 꼭 거리를 설명하여 너도 공포극장을 보라며 답장 해라고 하고 끝냈다. 주말에서 피터에게 말한 내용을 쓰고 있는데
	3단계	검은여우를 봤다 너무나 멋진 광경이어서 한 번 더 보고 싶었다 바로 답장 지금까지 썼던 편지에 내용을 써주고 검은여우를 보 애기를 쓰려 했지만 참았다. 톰은 어이도 린난에 숨이나 이리저에는 마생동물이 많다고 들었다 근데 야생 동물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된다 했다. 그 뒤로 나 홀로 톰은 검은여우를 기다렸다. 톰은 하마터면 검은여우를 놓칠 뻔했다. 검은 여우가 나무들 사이로 갔다. 톰을 따라 갔다 하지만 놓쳐버렸다. 그 뒤로도 피터랑 편지 대화를 하였다. 며칠 몇 극이 쓸 생각이 지나갔다. 톰은 계속 검은여우를 찾으려 했다. 한 곳에서 산포시 장에 들었는데 골짜기 밑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이 언뜻 보였다. 검은 여우였다
끝	4단계	검은 여우는 돌아서서 골짜기 꼭대기로 킁킁 킁킁 뛰어들었다. 톰은 가만히 있었다. 다음날 저녁을 먹을때 이모가 우리 할머니를 여우가 물어 갔지 뭐예요! 하고 말했다. 그래서 작질을 짜서 이모부와 톰 그리고 개와 같이 검은 여우를 찾으러 갔다 개가 검은여우를 물어갔고 찾았다. 검은여우를 구해줄 사람은 태만에 없는 것 같았다 갑자기 저 위쪽 숲에 검은여우가 있었다. 조금씩 가까이 갔더니

나 = 톰

검은 여우는 돌아서서 골짜기 꼭대기로 킁킁 킁킁 뛰어들었다.

검을 찾았다고 했다. 톰은 가만히 있었다. 다음날 저녁을 먹을때 이모가 우리 할머니를 여우가 물어 갔지 뭐예요! 하고 말했다. 그래서 작질을 짜서 이모부와 톰 그리고 개와 같이 검은 여우를 찾으러 갔다 개가 검은여우를 물어갔고 찾았다. 검은여우를 구해줄 사람은 태만에 없는 것 같았다 갑자기 저 위쪽 숲에 검은여우가 있었다. 조금씩 가까이 갔더니

한 동안 책장에 신경이 쓰여 장이 안 왔다. 천둥번개가 쳤다. 갑자기 잠에 들었다. 4시간이 지난 뒤 일어났다. 이모랑 애기 한 마리 데리고 갔다. 하지만 신경 쓰여 나뭇길 타고 내려와서 책을 읽었다. 비가 와서 놀았다. 사살을 다 말하고 이모와 부모님은 편찮아서 감을 차라했다. 다음날 농장에 차가 타고 갔다. 마크 집에는 톰이 있었다.

< 독서 >

> 을 읽고 나서

처음	1단계	이제 독서에 왜가리는 영타를 볼수있다 진짜 흥미로워라만 관심은 없다. 근데 영타를 볼수있니 진짜 재미있어라. 그렇게 영타를 다들 볼수있어 책에서 왜가리가 영타를 여러 곳에서 책을 읽고 심심해서 볼수있는데 영타를 보고 보니 더 재미있어하는것같다. 그래서 어떻게 독서록을 쓴다.
가운데	2단계	일단 이 책은 왜가리라는 글에서 최신작인 왜가리 글은 사책이다. 이책의 내용을 진짜 잘하게 잘 정리해 주려고 가게를 세워주는 내용이다. 내용은 왜가리가 영타와 같이 주공리가게를 세운다. 영타와 영타라고, 배에서와서 살던 왜가리 도시에서 나와서 지금의 왜가리 도시라는 이야기이다.
	3단계	일단 이책은 왜가리를 보고서는 볼수없습니다. 영타를 보고이책을 보면 책에서 말하듯 상황이 잘 정리되어서 영타라고, 영타라고 하는 영타. 영타는 어떤한 상황이와도 꿈과 희망을 가지라는 왜가리 대하라고는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공 영타를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는 끈기과 노력이다.
끝	4단계	이책을 읽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왜가리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지만 나는 금방 포기하기 때문에 왜가리를 본받아야 할것이다. 책을 읽으며 세계를 여행하는것같다. 앞으로는 원제도 왜가리를 본받아려고 노력해야겠다.

(Handwritten signature)

김수환

중급

< 우리 조상의 경제 생활 > 을 읽고 나서

처음	1단계	내가 이 책을 읽고 이윽고 옛날의 경제 사회가 궁금해졌다. 그리고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갈지 알고 싶어서
가운데	2단계	신라기 시대만 해도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식에게 피양자를 적지 않았고 청동기 시대에 들어와서 물물교환이 많아서 점차 청동기 시대에는 물고기로 잡는 바닷가 제방과 농사짓는 지방에 대부분 교류를 했었다. 하지만 물건의 양을 많게는 여러가지로 주고받게 되었다. 그러하여 쌀과 전래의 개량이 많이 되었다. 고고학의 발견 보면 공작물 중에 1개는 남의 물건을 들인 사람은 그물감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다. 몹시 복을 얻을 수 있음을 내보한다. 기원전 1세기 무렵 한강 도에 전기가 널리 퍼졌다. 청동 도구가 널리 퍼져서 국민들의 삶이 평해졌지만 세금 때문에 국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졌다.
	3단계	귀족들은 복속해져서 사회를 움직이는 사가나 시장은 길어 확장해 갔다. 그러면서 여러나라와 교류를 해왔다. 모내기 벼를 옛날에는 잡지 않고 농사짓었다. 율리우스가 죽이 많이 피우고하고 생각해 가면서 이어나온 농사를 지양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중에 서양지를 만드면서 가을에 마늘을 많이 지었다. 그러서 대에는 작물을 바꾸어 심으면 땅의 영양분이 다시 토양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흙이 영양분을 얻어서 바뀐다. 고고학시대엔 자미근은 사슴 위장이 왔다. 장인들은 만능으로 만든 것은 바쳐야 해서 장인들은 한의원에서 장인들은 일반 공예는 승려들이었다.
끝	4단계	예년에는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어도 귀족들이 세금을 걷어서 가난해지게 만들었다. 더 나은 경제 사회를 위해서

가난해지게
만들었다

중급

< 여름이 준 선물

> 을 읽고 나서

읽게 된
이유

처
음

1단계

옛날에 다니던 독서를 한원에서 읽었던 책이지만 아주 인상깊었던 책이라서
그전에 판자가 쌓여있던 책을 꺼내서 다시한번 읽어보았다. 읽어보니 그때
하루 내 생각이 많이 달라져 이렇게 독서를 까지 써보았다.

간접하기

2단계

<여름이 준 선물>은 삼총사 모리류.하라가 있는데 그중 똥똥하라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 때문인지 아이들은 죽음에 대한 호기심이 상승했고
이제 곧 돌아가실 거라는 할아버지를 감시한다. 그러나 대놓고 감시하다 할아버지한테
들리고 할아버지와 아이들은 서로 단짝이 된다. 이런 삼총사의 호기심은 40년을
외로움이 묻은 살아온 할아버지에 변하를 준다.
잡초만 무성한 제 할머니에 가던 할아버지 집주변은 말끔히 정리되고, 새로 매단
발코니에는 하얗고 짐과 말로달룩한 옷들이 주렁주렁 걸렸다.

가
운
데

3단계

나는 이책을 읽고 죽음에 대해 생각해왔다. 주변사람들이 돌아갔을때 내 가족이
죽었을때 그때가별은 어떻게? 엄청이상한 기분이다. 그때 드는 기분이 '죽음'이다.
죽음은 무엇일까? 시제는 남아있지만 영혼이 나간 것을 말한다. 이처럼 이책을 읽으면
가장 먼저드는 생각은 누군가 돌아가셨을때 기분이다. 나는 2년전 4학년때 큰 외삼촌이
돌아가셨던 기억이 있다. 난 큰 외삼촌과 친하지도 않았고 몇번부지도 않았아서 딱히 큰
감정은 없었지만 기분이 묘했다. "몇달전 까지 보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니 이해해..."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때 하라도 그랬을 것이다. 비록 할머니와 친해지는 않았어도
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은 견어바야 할수있다. 더 가까운 사이였다면 더욱
슬펐을 것이다. 죽는 정에는 많은 루머가 있다. "죽으면 시형세계가 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 등등 많은 루머가 있다. 모리류.하라도 이루머를 어떻게
맞는지 궁금했는 것이다. 그래서 곧 죽는다는 할아버지를 감시하다 우정이 쌓인 것이다

생각이나
노기
- 기
- 습


끝

4단계

이 책의 제목인 <여름이 준 선물>은 처음엔 호기심을 감시하던 사람과 친해진 것이
선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것 같다. 이책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처음에 묻고
죽음이라는 단어때문에 이상한 책 같지만 나중에 다 읽이 되는 책 인 것을 알수있다.
또한 아이들과 할아버지의 나차이는 많이 나지만 끈끈한 우정이 이세상 사람들
모두 친구가 될수 있다는 말같아서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졌다. 앞으로 이책처럼
감동적인 것을 많이 읽고싶다.

다짐

> 을 읽고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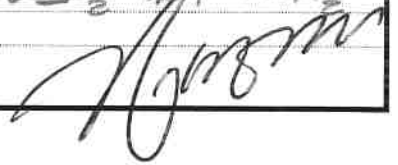


중급

< 신비한 익룡 사전 >

> 을 읽고 나서


처음	1단계 읽은 이유	안녕하세요, 저는 < 신비한 익룡사전 > 을 읽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익룡을 공룡인줄 아시는데 사실은 익룡과 공룡은 전혀 관계 있 는 공룡은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읽었 어요. 또 저는 공룡하고, 익룡도 배우고 싶어서, 익룡에 과 사육류들 치천관계표를 그렸고, 이제는 익룡에 대한 이야기를 싣려고 해요. ~ G 이!
가운데	2단계 조금 거리	익룡이란 이름을 독일어 박물학자 요한 카우프 가 지어준 거예요. 원래 익룡은 (Pterosauria) 즉 프테로사우르 라는 뜻인데, 일본어로 그림이 넘어 오면서 익룡이라 됐어요. 익룡은 크게 2가지 로 나뉘요, 고리 긴 예와 (원시 익룡 캄포리쿠스류) 고리 가 짧은 예로 나뉘요. (프테로닥틸루스) 제 일 무거운 익룡은 케 차크나 투루스에도 무게가 8천정도 되거 요, 제 일 큰 익룡은 아라 보우르 게바 나 와 하체 공테릭스 예요 (아라 보우르 기바 나 13m, 하체 공테릭스 22m) 큰 익룡 들은 주로 백악기 후기 때 나왔어요. 1200마리 나 발견된 프테라노돈 이 연구가 가장 잘 되었 어요, 또 픽시 (Piksi) 라는 익룡도 있는데 깃털이 에도, 몸집이 달걀 해 서 이름이 픽시인가 와요. 익룡들은 주로 중국에 서 발견되요, 그리고 깃털은 주로 드라코 는 깃 4요,
	3단계 느끼고 생각	저는 책을 보면서, 익룡은 아직 약 30마리 밖에 발견 안 됐대 그리고 화석이 되는 경우도 매우 드 물다 (공룡들이 발로 무거운 게기나, 들에 화석이 있거나, 되 면 화석이 어려움) 그런데도 130마리가 발견 되거면 많이 발견 되거나 나는 앞으로 익룡 (책이 많이 발견 되면 좋겠다, 그래야, 복원을 정확하게 하고, 익룡에 대한 것 이 발견 할 수 있) 으 나 기간 말이다,
끝	4단계 마침	저는 주생대 때 살았던 거의 모든 도마조기 트 이 공룡을 제일 좋아 하죠, 하지만 이제 는 익룡 도 좋아 하거예요 왜냐면 저는 익룡에 대해 잘 알 고, 나중에 익룡 뼈가 많이 발견 되어 다시 복 원 해 보 면 좋겠어요, 복원 하 고 날 까지 기다릴 게요.



중급

< 심정전 > 을 읽고 나서

처 음	1단계	나는 최근 '심정전'을 읽었다. 책에서 권장한 책이기에 반은 강제로 읽은 것이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이 많았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예를 하나만 '호'에 대해서 특히 많이 읽을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이 독후감에 '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일단 '호란, 화제가 복오에게 충성심과 조경심 등을 표현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말하여 자녀가 부모를 위해 하는 일이다.
가 운 데	2단계	일단 '심정전'에서는 명연인 심봉사와 관세봉인 사이에서 정이가 태어난 것으로 시작한다. 비록 심봉사와 관세봉인은 평면이 충격되었지만, 높은 나이에도 자식을 얻어 기뻐했다. 그러나 심봉사의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아, 관세봉인이 죽자 심봉사는 정봉사를 하여 심정이를 키웠다. 그리고 나서 삼년후, 심봉사는 열다섯 살의 나이로 심봉사를 돌리었다. 그러자 심봉사가 호랑이에 공양이 심봉사를 원이 하게 된다. 공양이 심봉사를 이제 다룬 후까 고민하다 백사당들이 15살의 소녀를 위해 돈 만큼 한대판대, 심봉사는 스스로 백사당에 바쳤다. 그러나 심봉사는 심봉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고, 후에 자식으로 나와 정봉자 원복 명인 잔치를 열어 심봉사와 만나게 된다.
	3단계	나는 '심정전'을 읽고 생각했다. 나도 과연 심정처럼 부모에게 호를 다할 수 있을까? 의하면 호는 필수적으로 강하게 표현하는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호를 다하는게 부모에 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호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보고 싶다. 물론 자식도 책임감이 있게 살수 있다는 걸 보여드려 주고, 저를 옆에 있어도 함께한다고 느끼게 도와드릴 것이다. 호는 나 자신이 필수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하면 '좋은 것'이고, 나는 그 좋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내 목표이다. 호는 어쩌면 호국경사대가 왜가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해 결책일수도 있다.
끝	4단계	'심정전'에서는 정이가 죽음을 용해서라도 호를 다했다. 그러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호를 다할 필요 는 없다고 한 생각한다. 그래도 나는 호를 할 것이다. 호를 할 때는 강요하면 안 되고,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호를 할 것이다.

심정전 독후감 - 끝 - 

< 아버지의 일기

> 을 읽고 나서

처음	1단계	제가 이 책을 읽었던 아버지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선물해 주셔서 한 동안 아버지에 관한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그 책을 보, 한번 더 읽은 후에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가운데	2단계	아버지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선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과 어머니, 아버지인 모든 가족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두렵고 공포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이런 성취를 끝까지 이룬다는 것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들었던 가족의 기쁨과 행복이 모든 아버지의 가족들이었지요. 어쨌든, 아버지의 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3단계	전 이 책을 읽은 후, 아버지를 잊고 있었던 마음이 많이 잊혀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책을 읽은 후,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끝	4단계	이 책을 읽은 후, 전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전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 햇빛도 대나무 숲에 새글이, 들어왔습니다. > 을 읽고 나서

처 음	1단계	<p>엄마가 도서관에서 두 권의 책을 빌려왔다. 그중 한권은 권가 정말 재밌어서 자신의 책이라고 오겨하증 착아였다. 그래서 나는 마침 독후감 숙제도 읽으니 한번 읽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기로 했다.</p>
가 운 데	2단계	<p>유나와 민철이는 전부터 친하게 6학년이 될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어 왔다. 유나는 책광인 '철'이란 아이와 친해졌다. 다른 반인 민철이가 계속 유나네 반으로 찾아왔다. 민철이는 민철이에게서 알게 되었다. 민철이는 상처를 받고 유나와 민철이와 말 하나 하지 않았다. 밤과를 반대한 에서 민철이는 작은 책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반대한 선생님이 학생들만 센터를 방문 했다. 그때 민철이가 손을 들었다. 센터 민철이가 되었고 민철이가 되었다. 민철이는 아직 박사 하나 못 맞춘 상태였다. 민철이가 13월 밖에 안남아서 선생님은 유나를 센터로 하 라고 했다. 그때 유나가 강당에서 일어서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쳤다. 유나는 피범벅이 되었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날 밤 대담에는 목격자 분이 두명이 나왔었다. 유나는 그 글을 보고 힘들어하자 민철이가 두번째 글을 자신이 썼다고 말을 해준다. 그리고 대담의 판권 자라는 것도 알려준다. 그리고 민철이는 결국 유나에게 사실을 알려준다. 유나와 민철이는 화해를 했다.</p>
	3단계	<p>친구 사이의 갈등이 잘 들어났 것 같다. 특히 죽은 공들 3명으로 한 것이 마음에 든다. 책에 '대담' 이라는 대나무 숲이라는 SNS 익명 채팅방이 나와서 놀랐다. 초등학교에 도 대담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땐, 이틀 밤이 아이들 끼리 이루어야 하는 것이나 초등학교 대담을 읽는게 나을 것 같다. 나는 유나처럼 감제키 네 열크 에 취지만, 평생 제치지 않고 상처가 생긴다면 어떤 회복하기도 어려운 상처를 만든 사람에게 큰 미안함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유나 곁에서 이야기를 잘 들어 주고 전심으로 조언해주는 보건선생님이나 유나의 부모님 같은 어른이 곁에 있으면 힘이 될것 같다. 그리고 민철이도 마음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한다. 물론 한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친구의 열크의 큰 상처를 했지만, 유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나에 게 사실을 알려준다는 게 멋있다. 유나와 민철이, 민철이가 다시 우정을 되찾 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p>
끝	4단계	<p>여러 사람의 마음과 관심을 한번에 받는 것은 쉽지 않고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 있다. 다른 길 다시 한번 재밌었다. 학교에서 한 사람에게 대한 안좋은 소문이 들면 목 하지 않고 선물을 주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 싶다. 그리고 열크에 큰 상처가 생기 평생 안 지킬 수도 있고, 상처를 만들 지 한 아이에게 미안 감정이 들어 있을 때 이해하고 그 마음을 보받고 싶다.</p>

중급 이름: 남대현

< 말 안 하기 게임 > 을 읽고 나서

처음	1단계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는 폰카 제티앗이 보이고 재물이 신박했기 때문입니다.
가운데	2단계	이 책의 줄거리를 요약 해보자면 데어브라는 수인공 아이가 리자라는 아아와 '날카로운 여자'라는 주제로 사육사가 5학년 날아 아이들을 모아 몰살하지 않으며 경쟁하는 이야기에 읽니다.
	3단계	이 책을 읽고 느낀점은 책의 내용이 생보다 길고 조금씩 어려운 문장이 많아서 생경히 읽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또 다른 느낌은 책에서 아이들이 약간 위대한 사람으로 느껴 강해합니다. 고작 말하느라 가지고 사육사끼리 쟁다 읽니다.
끝	4단계	이 책을 읽고 느낀 코장은 차별과 공평을 나타낸 한된다는걸 느꼈습니다. 이념으로 독자들을 다치겠 습니다.

왜? 되어

안되어

남대현

중급

최진화

<

우주호텔

> 을 읽고 나서

처 음	1단계	국어책에서 우주호텔을 읽었을때 재미있었고 도서관에서 우주호텔이라는 책을 또 읽었을때 재미있어서 이책을 썼다
가 운 데	2단계	등산 할때너를 꼭꼭잡이 없어서 페이지를 줄고 있었어 그 할때너를 무리들 같이 할때너라 불렀어 같이 할때너는 다른데를 다닐었지만 수줍게 지기의 들만 들었지 않았고 생각했어 어느날 같이 할때너도 프렌즈처럼 페이지를 꼭꼭잡이 해서 가게로 향했어 하지 말 재소 가게 앞까지 돌아와 할때너가 있었어 할때너 할때너가 같이 할때너의 페이지를 줄고 있는것에 화난 같이할때너는 꼭 할때너를 잡아 버려서 같이 할때너는 이사를 떠났던 리브 리브라이에게 페이지를 봤었어 같이 할때너는 다음날 그 다음날도 페이지를 봤었어 어느날을 스케치북을 봤었어 그 스케치북에는 할때너의 기억속에서 사라진 할때너 있었어 그리고 우주도 있었지 할때너는 그 우주그림을 소녀에게 물었어 소녀는 대답했어 미친 우주호텔이거든 같이 할때너는 장난을 장난을 한 있는데 할때너 웃음 지어 같이 할때너는 질때너는 우주그림을 보여 여자가 우주 한자는데 우주 호텔이라는 말을 했다(끝 2단계)
	3단계	나의 상상력이 좋은 수록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느꼈고 미행이 국어책에 나를 위한 좋은 재미있는 책이라 다들 잘 가게 되었다
끝	4단계	나를 나중에 ^벚 벚나무가 많은 만큼 잘 사는 사람이 되어서 ^벚 벚나무가 많은 나중에 우리로 글리기 많은 저라고 다짐했고 다짐했다 (with: 최진화) "slow 하겠다"

최진화

김여일

중급

< 그대나눔 열한살이였다 > 을 읽고 나서

처음	1단계	<p>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김치와 열한살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에 전쟁을 모티브로 잡았기 때문이다. 문이다 전쟁의 아주 조금 관심이 있던 나는 이 책을 안 읽을 수 없는 책이다 그리고 제 4월 3항쟁도 우리가 아파서 내용들을 보스기 책이 읽는데 마음에 쏙 맞는 책이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 등을 볼 수 있는 이 책을 추천한다. 이 책의 줄거리를 요약해 보자면 이 책은 전쟁에 화제를 한다. 아들이 다들 가요 한다. 전쟁에 이 실패서 다 배워 주겠다. 이 말이 일본과 싸워서 이겨 우리나라 해방과 민족과 소련이 남북을 신약도시 하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우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 책은 이 책을 잡아간다. 아버지는 두수의 편이 아니어도 오아가셨다. 주인공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학교를 안다. 그리고 9월 15일 정부가 수립된다.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다. 애석이란 면은 이가 전쟁놀이를 하다 역사학을 한다. 그제야 전쟁이 왜 벌어졌는지 알았다. 아이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p>
가운데	2단계	<p>난 이 책을 읽고 난 뒤로 생각이 느낀 점은 1945년 8월 15일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짜 힘들었을 거 같다. 그 전 다가가 총 맞고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민생이었던 대사는 그제야 평화에 대한 뜻을 얻고 다녔다. 했을 때 알 것 같았다. 전대 아이들에게 새날을 안겨 주었다. 아이들의 눈물 감추지 못하도록 이 대사가 제일 이상한 것이다. 이 책은 내 삶에 비유하면 아대 선계 집안에서 왔을 거 같다. 이대 선계 아이들이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민족의 유독을 해신 분들도 정말 대단하다. 시위하다 경찰한테 총을 맞고 죽는 데 그거 가지고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p>
끝	4단계	<p>이 책을 읽고 난 뒤 나의 바람은 앞으로 <u>평화</u> 있는 사회가 되고 싶다. 1945년도 해방 시위 한번 했다고 주는 상급이 제정어지고 서로 도우면서 사는 사회가 되기를 나의 바람이다. 그리고 나의 다짐은 서로 협력하여 사회를 만드는게 나의 다짐이다.</p>

< 해리포터 출판물상자 2

> 을 읽고 나서

처 음	1단계	부인이 책을 읽어보라고 해서 해리포터 책을 시리즈로 읽은 그녀나 그중 하나 중에서 가장 좋아서 영화가 재미있어서.
가 운 데	2단계	해리포터를 처음 보았을 때의 기억이 또 새롭고 교사가 이들의 마법 방에 발 트르 바퀴 사탕과 마법약 교사의 슬리퍼와 수업을 듣게 된다. 관객이 복권해 다짐과 관습을 깨닫지 못해서 볼링 채워 주위의 예로 로 마법약을 만들자 같은 열매가 나와 상을 넣을 그녀의 친구 혼혈왕자 라는 사람의 책. 덤블도어의 수업 위해 교장실에 간. 제니버를 밤 오디세이는 사람의 기억을 잃고 다른 시골에서 온다는 사람 의 집으로 갔다. 곧 마법계가 덤블도어의 아내인 덤블도어의 책상 옆에 바지가 있다. 그리고 이대로 난 덤블도어가 시위대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 해리포터가 있는 덤 블도어와의 수업을 받으려 한다. 덤블도어의 기억이었다. 기억에는 검은 시점의 덤블도어의 '투 리얼 블드'가 있었다. 브라운에서 덤블도어가 블드도를 호 그아트로 잡혀서 왔다. 슬리퍼와 사람의 날 머리는 한에게 무대를 댄스 음악 부스를 찾았다. 그러므로 애고 큰 펠릭스 펠릭스를 넣었나고 물어보는데 머리는 낮은 것을 했다. 해리가 혼혈왕자의 데모 마법약 수업을 잘 해내게 된 듯만 당한 것 같다. 소스로 해내야 하는데 혼혈왕자 라는 사람 때문에 마법약 성질이 들어간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덤블도어와의 수업에서 어떻게 블드도가 너무 행동과 특징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좀 두었다. 그리핀도르와 슬리데린에 경기 에서 해리가 기가 펠릭스 펠릭스를 넣는 줄 알고 불렀다가... 맨땅에서 시위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다. 왜 맨땅에서 시위대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건 흔한 것 같다.
끝	4단계	이 책을 읽고 난 후 책이 재미있었던 그래서 더 많은 책을 읽으 려는 나의 마음이 생긴다.

중급

<

마틸다

> 을 읽고 나서

처 음	1단계	예전에 유튜브에서 마틸다 영화를 요약된걸 봤는데 재밌어서 책도 읽게 되었다.
가 운 데	2단계	<p>주인공 마틸다는 5살 천재다. 또 초능력도 쓸 수 있다. 마틸다의 부모님은 죽지 않은 부모님이었다. 마틸다는 그래서 늦게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p> <p>마틸다가 다니는 학교의 교장쌤은 아이들은 괴롭히는 나쁜 교장선생님이었다. 마틸다는 아빠의 묘자에 접착제를 붙이고, 교장선생님이 매는 물에 벌레를 넣어서 작은 복수를 한다. 마틸다의 담임선생님은 착한 쌤이고 마틸다의 재능을 알아봤다. 그리고 담임선생님과 복수 작전을 계획하고 성공하여 마틸다는 담임선생님과 살게 되었다.</p>
	3단계	<p>마틸다는 교장선생님에게 잘못도 없이 심한 학대를 받았다. 마틸다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힘들었을 거다.</p> <p>내가 마틸다였다면 우울증에 걸릴만큼 슬프고 매일 울었을 거 같다. 학교도 보내주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또래 친구들을 사귀는 기회가 거의 없어서 슬펐을 거 같다.</p> <p>그런 지옥 같은 시간들을 잘 견뎌낸 마틸다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p> <p>교장선생님과 부모님에게 떨어져 착한 담임선생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p>
끝	4단계	나도 마틸다처럼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내고 견뎌내야겠다.



< 블라인드 > 을 읽고 나서

처 음	1단계	내 형이 방에서 읽고 있는데 재미 있어 보여서 책상에 빈니 달고 계속 졸라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가 운 데	2단계	서바이벌 게임 '리베' 란드 포레스트' 게임이 시작되고 상수는 60억 원 이다. 여기 참가한 사람들이 전이라, 아군이 되기 조를 다 이 게임에는 역활이 존재한다. 사자. 늑대아비 마음의 나뭇꾼, 남작 마녀 노즈, 도령이 이렇게 6개의 역활이 존재한다. 계속 게임이 시작 되니 게임에서 아웃 되는 사람이 많다. 첫번 주제는 수원 두번째는 덩개 3번째는 공룡이 죽은 적들 라고 4번째는 라더가 범인이다. 하지만 라더만 남기고 그러 냈다 마지막에 동구로 2등에게 전원다음 조목 쓰고 책은 끝이 났다
	3단계	안 좋은 곳으로 가지 말고 좋은 곳으로 가고 행사 나와 내 보물함을 만들고 나의 꿈과 좋은 생각이 되나 라고 이 게임에 참가 하지 말고 마음의 고독해서 대항을 졸업하고 좋은 것사리에 좋은 생각이 난 것이다.
끝	4단계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보물함이 가라 는 반함으로 가고 나보다 나은 멋진 생각 해야 한다고 하였다

책을 이렇게
읽어
볼
이유

곳
곳
거
리
가
보
야

이 책을
읽고 난뒤
나의 생각

이 책을
읽고 난뒤
어떻게
바뀌었
는지

186121

20180808



조상연

중급

< [] 털이 뭐길래! >

> 을 읽고 나서

처 음	1단계	<p>< 털이 뭐길래! > 를 읽은 이유는 처음 4학년때 이 책을 받을 때 읽게 됐다 처음에는 이 책이 뭔지 몰랐는데 읽어보면 정말 재밌고 유익한 내용이 정말 많다 계속 읽으면 질문을 알았는데 전혀 질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매력으로 이 책을 읽게됐다. 이 책은 털의 대해 해결 방법을 찾는 이야기다.</p>
가 운 데	2단계	<p>< 털이 뭐길래! > 이 책의 줄거리는 (여자) 주인공 박하리가 털 때문에 해결 방법을 찾는 이야기다. 박하리는 축구경기에서 4:1로 이겼는데 이때 구지범이 박하리의 다리 털을보고 여자털보라고 놀렸다. 박하리는 털을 없애기 위해 인터넷에서 털 해결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근데 유독 좋아보이는게 하나 있었다. 바로 제모크림이었다. 근데 너무 비쌌다. 그래서 그냥 면도기로 다리를 밀었다 근데 늘려서 매끈해졌다. 하지만 학교에 갔더니 털이 떠간다고 해서 고슴도치라는 새로운 별명이 새로 생겼다 그래서 박하리는 털에 대해서 궁금했다 근데 털은 부끄러운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래서 박하리는 털 자유선언서를 쓰고 당당하게 다녔다.</p>
	3단계	<p>< 털이 뭐길래! > 의 나의 생각과 느낌은 털이 많이 나면은 보기 안좋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은 후 털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부끄러운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 책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털을 그래도 관심을 좀 해야겠다.</p>
끝	4단계	<p>앞으로 털을 자유롭게 해야겠다. 털은 부끄러운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걸 알게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책을 좀 많이 읽어야겠다.</p>



Handwritten signature

< 기소영의 친구들

> 을 읽고 나서

처 음	1단계	<p>"기소영의 친구들" 친구의 초친으로 읽게 되었습니다.</p>
가 운 데	2단계	<p>소영, 채린, 명진, 연화, 나리가 한때 같이 지냈다. 소영이가 교통사고로 하늘로 떠나게 됩니다. 채린, 명진, 연화, 나리는 채린이를 위해 난골염을 소영이 동생 소민이와 조복모남에게서 같이 갖지만, 조복모남은 먼저 꺼고 아이들만 남아있는데 결국, 음식을 터뜨리 맙니다. (아이들 모두가 소영이를 좋아했음)</p>
	3단계	<p>친구가 떠났다는게 실감이 나지 않음리겠습니다. 아이들 모두가 채린이 덕분에 알게 되었는데... 채린이가 가버려 정말 속상함을 느끼겠습니다. 친구를 위해 난골염, 토끼치 내진 아이들이 정말 자랑합니다. 소영이의 동생 소민이도 안쓰럽습니다. 간 유지만 보면 재미있어 보이지만 막상 읽으면 너무 슬퍼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p>
끝	4단계	<p>처음 소영이처럼 친구가 떠나면 아이들처럼 하겠 습니다 실감이 듭니다. 이 책을 읽고 큰 감명을 하게 됩니다. (친구가 떠나기전 많이 행복합니다.)</p>



독서

수집

중급

<조동진 씨의 낚이야사만 바다 100기리> 을 읽고 나서

처음	1단계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당시 3학년때 내가 과학을 좋아했었다. 도서관을 돌러보고 있는데 이 책을 우연히 발견했다. 난 바다를 관심분야로 두어서 이 책을 골랐다.
가운데	2단계	이 책에는 여러가지 바다에 대한 과학 내용이 담겨있다. 지구는 땅의 행성이 아니라 물의 행성이다. 지구의 물이 71%, 땅이 29%이다. 가장 큰 눈알은 남극과 북극이며 오징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산 동물을 심해에서 발견하다 약 11000년 살았다. 소라게는 잠을 자고 있을 때 항상 먹이맛을 대러간다.
	3단계	내가 바다를 관심분야로 두어서 그래서 이 책에 내용이 흥미진진하다. 바다에 대한 내 생각도 덕분에 더 늘어났다고 같다.
끝	4단계	더 많은 바다에 내용을 알고싶고 앞으로 더 다뤄, 책 여러가지 등등으로 바다생물의 비약을 알고싶다.

(Handwritten signature)